

폐석산 폐기물 처리 대책 본격화

익산시, 환경부·주민·배출업체와 체결한 협약에 따른 행정대집행 돌입

익산시가 낭산면 폐석산 폐기물 이적 처리 합의사항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돌입했다.

시는 최근 낭산면 폐석산 불법 폐기물 20만 6,000톤 중 우선 처리 대상인 8~9만여 톤에 대한 이적 처리 행정대집행에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26일 환경부와 주민, 배출업체 간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시는 지난 7월 용역을 통해 확인된 오염폐기물의 이적 처리와 침출수 제거 등 대책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환경부·전북도·주민대책위원회·복구협약체와 수차례 간담회를 진행한 끝에 협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시는 이번 행정대집행을 통해 기존



성상(오염도) 조사에 따라 조사된 오염폐기물 범위를 심도별로 굴착해 이적 처리하고, 오염되지 않은 폐기물·토양은 사업장 내 적치 후 오염 여부를 재차 분석·검증해 재매립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또한 폐기물 처리 후 5년간 사후관리 점검을 통해 폐기물 안정화와 침출수 변동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다. 복구협약체는 토양 및 지하수정화업무를 수행하는 (주)지앤에스엔지니어링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폐기물과 침출수를 총괄 관리한다.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한 폐기물을 제외한 약 12만 톤 잔량은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인근 주민들은 오염물질 잔존 여부 검증과 비오염 토양 분석을 위한 시료 채취 확인 등 작업에 직접 참여해 처리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대집행은 그간 소송으로 일관하며 폐석산 폐기물과 침출수 처리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강제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의회, 2024년도 예산 1조6390억원 확정

불요불급예산 58건 54억7500만원 삭감 내부유보금에 계상조치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2024년 군산시 본예산을 1조6,390억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미숙)는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집행부에서 요구한 1조6,445억원의 2024년 예산안에 대해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총 58건 54억7,500만 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에 계상조치 하기로 하고 1조6,390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했다

또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했다.

예산안의 세출사항 중 삭감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군산시 홈페이지 전면개편 5억원 △선유 스키야트 라인 시설보수 공사 2억6,000만원 △2024 군산뽕페스티벌 1억5,000만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억원 △투명페트병 무인화수기 설치 1억4,000만원 △공원 가족화장실 조성 사업 1억원 △군산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2억5,000만원 △예술의전당관리 과 정기연주회 공연비 2억5,800만원

등 57개 사업에 30억5,358만원을 삭감했다

이어 특별회계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24억 2,200만원을 삭감했다

송미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024년도는 예산안 심사는 정부의 건축재정 기조와 글로벌 경쟁 지속 등 대내외의 불확실한 환경 변화를 반영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꼼꼼히 심사했다"며 "심의 간 지적된 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익산=김판곤 기자

군산 새만금문화학당 수강생, 4년만에 군산방문

중국 내 운영하는 한글학당 우수학생 대표단 군산수학여행 재개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약 4년 만에 '군산 새만금문화학당(한글학당)' 수료생이 군산을 찾았다.

시는 코로나19 기간에도 중국 자매·우호 도시 내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운영하여 2020~2023 누적 총 수료생 456명을 배출했다

이번에 시를 방문한 수강생들은 군산과 서울 두 지역을 방문하여 군산과 새만금 한국 문화를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며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방문한 중국 장인(江陰), 양저우(揚州), 베이하이(北海), 랴원강

(連雲港)시의 군산 새만금문화학당 우수수강생은 군산시의 도시 공원은 파호수공원 방문을 시작으로 근대역 사박물관을 중심으로 한 시간여행마을, 경암동철길마을 고군산군도(새만금) 등 우리시 관광정책 현장 탐방과 금강미래체험관 방문 및 에코수순건 제작 체험 등을 통해 한층 더 군산을 알아가고 귀국 후에도 군산시의 소중한 자산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군산시 자치행정국장은 우수학생단과의 간담회에서 "어려운 시기에 배웠던 만큼 더욱 의미 있게 배웠을 군산과

새만금, 그리고 한국과 한글을 짧은 기간이지만 많이 접했길 바라며, 귀국 후에도 우리 군산시의 소중한 자원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2014년 군산 새만금문화학당 운영을 시작한 이래로 매년 추진되어 온 문화학당 우수 학생 군산방문 사업은 중국 자매·우호도시 내에서 운영하는 문화학당의 우수 학생으로 꾸려져 19일부터 22일, 나흘간 군산과 서울을 방문, 한국을 체험하고 귀국할 예정이다

한편 군산시는 1994년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와 자매도시 체결을 한 이후로 중국 내 13개 도시와 우호 협력을 다져오고 있다

익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주거지원센터가 저소득층을 찾아 주거 불편 사항을 해결하는 환경개선사업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주거 환경개선사업 만족도 98%

익산시, 취약계층 전등·창호·수전·도배·장판 등 주거개선

익산시 주거지원센터가 저소득층을 찾아 주거 불편 사항을 해결하는 환경개선사업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주거지원센터는 올해 2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3,100건(700세대)의 수리 교체 작업을 진행했다

센터가 추진하는 서비스는 LED 전등과 누전차단기, 창호, 수전류, 도배, 장판 등 주택의 전기와 설비 분야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른 이용자 서비스 조사 결과 98%의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만족도 조사에 응한 한 노인은 "몸이 성치 않아 오래되고 망가진 것을 수리하기 어려웠는데 직접 집에 찾아와 친절하게 처리해주 정말 고맙게 생

각한다"고 전했다

센터는 2012년부터 찾아가는 주거복지 사업을 시행, 매년 600세대 이상의 저소득층에 주거 불편 사항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해 왔다 특히 지난 4월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에 단독주택과 소규모 공동 주택에 한정했던 사업 범위를 내년분부터 아파트까지 확대해 저소득 계층 4,5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민경수 주택과장은 "앞으로 관련 부서나 단체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거지원센터(859-4481~2)나 익산시 민원콜센터(1577-0072)에 신청하시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중국 청소년 관광객 1만명 유치 나선다

익산시의 익산문화관광재단이 중국 청소년 관광객 1만 명 유치를 위한 행보에 나섰다

익산시는 20일 예술의전당 세미나실에서 중국 심서성 25개 여행사와 함께 2024년 중국 청소년 특수목적 관광객 1만 명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내용에 따라 내년분부터 익산시를 중심으로 한 중국 청소년 문화 체험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기획은 중국 청소년들이 익산 지역의 관광지를 포함한 여러 장소에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역사를 배우고 한국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교류 시간을 갖는다는 점에서 일반 관광상품과 차별된다

아날 심서성 25개 여행사 35명 대표단은 내실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익산 관광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백제왕궁박물관과 왕궁리오층석탑, 미륵사지, 국립익산박물관, 하림, 익산아트센터, 고스라 등 익산 주요 관광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중국 시안 국제여행사 제품기획총괄자는 "심서성 지역 여행사들은 코로나 이전부터 이같은 기획을 준비해왔다"며 "익산시와 함께 청소년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게 돼 기쁘다"고 전했다

익산문화관광재단 김세만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문화·예술·음식·전통시장 등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중국 관광객이 익산을 알고 찾아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자 확대

군산시는 내년부터 디딤씨앗통장 통장 가입 대상을 확대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은 저소득층 아동이 성인이 될 때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동이 통장에 저축 시 정부 매칭금으로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하며 18세 이후 학자금과 주거비 마련, 기술자격 및 취업 훈련 등의 자립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내년부터 기초생활 수급 아동의 가입연령을 기존 12~17세에서 0~17세로 확대, 생계·의료급여로 한정되었던 소득 기준도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정 아동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시는 올해 월평균 530여명에 5억3,400만원의 매칭금을 지원, 111명의 자립을 도왔다

시 관계자는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지급되는 자립수당을 월 50만원으로 인상하여 사회 정착을 도울 예정이다"고 말했다

익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역량 강화 교육

익산시가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해 민관 농정협의기구인 희망농정위원회 역량 강화에 나섰다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 위원 70여 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농정계획 동향과 익산 농업발전 방안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익산시 희망농정위원회는 농업인과 농업인단체, 유관기관, 전문가, 행정 등이 참여하는 민관 농정협의기구로 박철용 위원장과 더불어 109명의 위원이 농민 정책 등 9개 분야에서 분야별 농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날 교육에는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가 강사로 초빙돼 '정부 농정계획과 익산시 농정방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했다. 이어 참가자들과 함께 익산시 농업발전 전략에 대해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익산=이재춘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